



WALL STREET 내부 — 의미 자본

GILLETTE FROM WALL STREET · 02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을 믿어 왔다. 그들이 따져 보고, 생각하고, 논리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앞으로 밀고 나가도록 북돋는 것을. 그곳에서 변화는 불안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고의 단단한 진화를 뜻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언제나 알맞은 상대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위험과 고귀한 측면과 이익을 기꺼이 분석하려는 사람, 매일 금융 시스템과 가치 안에서 일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그 모든 신사들 같은 사람.

WALL STREET의 신사들.

그런데 분기 실적 발표가 이익이나 손실을,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의 재평가를 결정할 수 있는 동안, 그 자체로는 대개 하찮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뉴스나 사건이 만들어 내는 시장의 소음은 경제, 산업, 정치, 보건, 사회, 혹은 다른 어떤 세계와도 엮이게 된다. 그 저 핑계로서.

위험의 지표를, 새로운 행동의 지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 의사 결정 자산을 옮기는 것은 흔한 관행이다. 늘 직관적이거나 본능적이지는 않은 그 결정을 이끄는 것은 1인자이고, 그는 2인자에게 기댄다. 아무도 자기 엉덩이 밑의 의자를 빼지 못하도록.

그러면 핑계는 거버넌스나 기업 컴플라이언스가 된다. 그래도 모자라면 언제나 누군가가 정화되고, 배제되고, 비난받는다. 변화의 순간에 행동할 용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

이것은 지나간 일의 역사이자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마주했는지의 역사다. 그리고 Bank of America를 세운 이탈리아 사람과, 담보 없이 그저 사람들 손의 굳은살만 보고 대출을 내주던 그의 의식을 떠올리게 한다.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무모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잊지 말자. 그 시대의 지진이 지나간 뒤 그는 금고 하나와 책상 하나를 도시 한 복판으로 옮겨 놓았고, 은행은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다.

그 은행이 나중에 무엇이 되었는지는 우리 모두 안다. 설립자의 부때문이 아니라, 그가 계속 정말 적은 것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뒤에 올 세대들에게 남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절 칼라브리아에서는, 농부들이 다음 날 날씨가 어떨지 알고 싶으면 아내에게 무릎이 아프냐고 물었다.

아하하하하.

그렇다면 Wall Street의 인사들에게 아직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 그렇다고 진짜 비용도 아닌 것, 뉴스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 a)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APPLE 20 휴대전화.
- b) 막 출시된 최신 ROLEX 모델.
- c) 2년 전에 예약한 새 FERRARI 버전.
- d) 흔히 볼 수 없는 종류의 ATOMIC 브랜드 신용카드 여러 장.
- e) 가장 배타적인 최고급 레스토랑 출입. 예약 하나만으로 당장 당신을 사랑해 줄 여자들을 찾을 수 있는 곳.
- f)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해튼의 고급 스위트에서 사는 것. 관리비만으로 아이 다섯씩 둔 네 가족을 1년 내내 먹여 살릴 수 있는 곳.

g) 직장에서 겨우 200미터 떨어진 개인 사무실, ONE LIBERTY PLAZA: 누군가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어쩌면 언젠가, 52층으로 올라와 나를 찾으면 된다.

Ferdinando Frega — 한 달에 70달러로 사는 사람.

100달러짜리 Swatch 시계.

파키스탄에서 만든 50달러짜리 Nokia 휴대전화.

점심시간에는 길에서 핫도그 수레 앞에 서서 1달러.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가끔 택시를 탄다. 여자가 운전한다면.

JP Morgan이 전화를 걸어 내가 투자나 인수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105억 달러어치의 주식 예약금은 놓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궁금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길 건너편에서 온 유능한 누군가가 아니라면. 이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부에 투자하도록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누군가. 존속 기간이 갱신 가능한 1,000년으로 늘어난 Nevada State Trust, 시작하고 끝낼 지점.

그러나 금융의 세계에서는, Wall Street의 세계처럼, 정말 유능하고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는다. 어머니가 당신을 세상에 내놓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오직 한 가지 이유로, 단 하나의 논리로. 그리고 나서야 당신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문한다.

선택의 용기.

그리고 새로운 이들이 올 것이다. 다른 어머니들의 자식들이, 당신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그저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동안 끔찍한 값을 치른 실수 하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

먼저 Gillette에서 일하는 행운을 누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언젠가 예수의 동료가 되기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브랜드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 그곳은 나의 집이 아니다. 서사는 결코 끝나지 않고 결코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 보고 이해한 것으로 충분하다.

시장의 첫 번째 진짜 상품은 말이다. 그리고 말을 강하게 만들고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한 적 없는 한 남자에게서. 그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용기를 가졌고, 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만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운 남자. 이것은 Harvard나 MIT의 어떤 과정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자본도, 회사도, 조직도 없는 한 명의 저자가 검색 엔진에 의해 하나의 문화 체계로 다루어졌다.

개인의 의미 밀도는 50년간의 의미 공백 끝에 세계의 산업 체계에 들어선 최초의 측정 불가능한 인지 벡터다.

결과의 요인은 열려 있다.

그리고 결과의 요인이 열려 있을 때, Wall Street는 멈춰야 한다.

Ferdinando Frega

Gillettenarrative.com 창립자 겸 소유자

한 달 70달러로 살며.

세대 단위로 생각하며.